

(가칭)경기안산1교 개교 앞두고 대부도지역 학생에게 가점 부여 ‘필요’

소외받지 않고 박탈감 느끼지 않도록 배려필요

대부도에 국제학교급으로 신설이 확정된 (가칭)경기안산1교 2028년 개교를 앞두고 가장 예민하게 지켜 보고 있는 곳은 바로 대부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들이다. 대부지역에 있는 대부초, 대동초, 대남초 등 3개 초등학교 역시 마찬가지다.

대부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은 향후 학교에 미칠 영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대부중고등학교 진학과 함께 (가칭)경기안산1교 진학 여부에 대해 실력과 가능성 여부 등을 놓고 점검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대부도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영흥도는 농어촌 지역으로 분류돼 농어촌특별전형으로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는 경우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도는 주거환경은 영흥도와 같은 지역이지만 도시지역으로 분류돼 학생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없다. 오로지 실력으로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

여기에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민에 빠지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에서 실력 있는 학생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칭)경기안산1교는 입학전형에서 1순위는 안산 관내 학생, 2순위 화성과 시흥 학생, 3순위 경기도 관내 학생으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부도 및 안산 지역 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글로벌 교육과정을 대부도 지역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한 공동 교육 과정 공유 및 활용으로 대부도 재학

생 대상 글로벌 리더 양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도서관과 체육관 등 학교시설도 개방을 통해 대부도 지역 학생과 주민의 학업 지원 및 평생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발표다.

이에 대해 김동화 대부중고등학교 교장은 “올해부터는 학생 수 부족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상과(정보처리과)가 폐교되었다”면서 “(가칭)경기안산1교가 개교하더라도 대부중고등학교 학생이 줄지 않고 늘어나는 계기가 되는 방안을 찾는 게 우리가 갖는 오늘날 숙제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또 “대부도 및 안산 지역 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추진하고 했는데 대부지역 초등학교와 대부중학교 학생들에게 일정부분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이민근 시장, 프랑스 현지서 ASV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IR 진행



이민근 안산시장(오른쪽 다섯번째)이 프랑스 파리 동부행정구역과 우호 협력도시 관계 수립 합의서를 체결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안산시, 경제자유구역 ASV 지구 비전 발표

개발 완료 시 생산 유발 연간 8조 4,000억 원, 신규 취업 2만 9,021명 전망

지난달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정된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ASV)를 글로벌 R&D 기반의 첨단로봇·제조 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한다. 아울러, 한양대 ERICA 캠퍼스와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 경기테크노파크 및 강소연구개발특구의 기업지원 인프라를 연계해 첨단산업 혁신생태계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14일 오전 시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개최하고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정책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개발 구상을 밝혔다.

안산시는 미래 첨단산업으로의 지

역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민선8기 핵심 추진 과제로 추진 해왔다. 이에 명확한 추진 비전을 갖고 효율적 개발계획 수립, 풍부한 기업 투자수요 확보, 우수한 정주 환경 조성(국제학교 유치 등) 등을 내세우며 지방 중심의 경제특구 지정 기조라는 수도권에 다소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최종 지정을 이뤄냈다.

부지별 기능 배치를 보면 ▲제3토취장(산업 용지)은 앵커기업 및 지원시설 ▲제2토취장은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 및 기업연구소 ▲89블럭 북측은 업무·연구개발(R&D)·마이스(MICE)·상업 등 복합개발 ▲한양대 ERICA 부지는 도시첨단산업단지(캠퍼스혁신파크) 및 글로벌 R&D 타운 등 종합적 산업육성이 가능하

도록 계획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높은 용적률(중주거·상업지구 등)을 통해 수도권 도심형 경제자유구역에 부합하는 개발구상을 계획 중이다.

이에 따른 예상 기대효과는 개발단계(토지 조성)에서 생산 유발 2.2조 원, 부가가치 유발 9,400억 원, 취업 유발 1만 1,849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향후 기업입주 완료 시점에서는 생산 유발 8조 4,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연간 3조 5,900억 원, 취업유발 2만 9,021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산시의 도시브랜드 제고는 물론,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제조혁신 등 지역산업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해지고 국제학교 유치 및 정주 환경 개선 등을 통한 거주 여건 개선 등 정성적 효과 또한 기대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이 시장, 유럽 현지 투자유치 설명회로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쟁력 갖기 위해 홍보 주력

안산시는 1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동부행정구역 본부에서 열린 국제협력 간담회에서 이민근 시장이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설명회(IR, Investor Relations)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IR은 지난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의 국제적 위상과 투자 매력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안산시와 프랑스 파리 동부행정구역 간 우호협력도시 협약 체결을 계기로 추진돼

상호 교류와 협력관계 확대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행사에는 프랑스 주요 기업 관계자와 행정기관 인사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의 미래 성장 전략 및 글로벌 투자환경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이민근 시장은 ▲AI·첨단로봇 중심의 R&D 특화단지 조성 ▲스마트 제조 및 글로벌 기업 유치 전략 ▲국제학교 설립을 포함한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계획 등을 발표하며,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의 글로벌 경쟁력과 우수한 투자 여건을 직접 강조했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주요 도시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제 투자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이번 국외 방문 일정을 통해 프랑스 파리 동부행정구역과 우호협력도시 관계 수립 합의를 체결했다. 또한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 협회에 교류의향서를 전달하고, 영국 온들스쿨로부터 국제학교 설립 투자자의향서를 확보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전원주택, 토지, 펜션, 매매 및 분양

포도나무부동산TV
YouTube **032.880.047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구봉길12 (구봉도 입구/ 배터지는 집 옆)

안산시, 세계 최대 공연예술 축제 프린지 협회와 교류 강화

안산시·안산문화재단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 협회와 협력 논의 가져

안산시는 16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 협회에서 (재)안산문화재단과 공동으로 국제교류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 협회는 매년 수백만 명의 관객과 전 세계 수 천 개 공연 단체가 참여하는 세계적 축제 기관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일부터 19일 까지 진행되는 국외 출장 기간 가운데 마련된 일정으로, 세계 최대 공연 예술 축제 운영진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의미 있는 자리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영국 사무소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며 교류 추진의 가교역할을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진행 중인 축제 운영 사례와 노하우, 홍보와 네트워크 전략 등 폭 넓은 부분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며 향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와 안산문화재단은 교류의 향서를 전달하고, 양 도시 축제 간 정보교류와 공동 발전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협력을 공식 제안했다.



안산시는 16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 협회에서 (재)안산문화재단과 공동으로 국제교류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이번 논의를 통해 안산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거리극축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민근 시장은 “프린지 협회는 세계 각국 예술가들이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공연을 선보이는 세계적 축제로, 이번 만남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 영국사무소의 추천과 지원 덕분에 성사된 뜻깊은 자리”라며 감사함을 표했다.

이 시장은 이어 “프린지 협회의 운영 경험과 국제교류의 지혜를 나눠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더욱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린지 협회 관계자는 “안산국제거

리극축제는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로서 프린지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라며 “양 축제 간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서로의 경험과 강점을 공유하고, 국제 예술 교류의 장을 더욱 넓혀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안산시, 프랑스 파리 동부행정 구역과 우호협력도시 관계 수립

문화·경제 교류 새 지평 상호 호혜적 협력 및 지속적 교류 체계 구축이 목표

안산시는 지난 1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동부행정구역(Paris Est Marne & Bois)과 공식적인 우호 협력도시 관계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파리 동부행정구역 본부에서 열린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한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등 안산시 대표단과 파리 동부행정구역 올리비에 카피타니오 의장, 시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민근 시장은 “지난해 줄리앙 베이유 부의장 방문 시 체결한 교류 의향서를 기반으로 공식적인 우호 협력도시 관계를 수립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양 도시는 서로의 장점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상호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도시는 교육·문화예술·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약 1만 2천여 기업과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혁신·경제 도시이자, 경제자유구역 지정 도시다. 아울러, 친환경 관광자원을 갖춘 국제도시로서 투자유치 및 문화 교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파리 동부행정구역 역시 문화예술·관광·도시 개발 등 다양한 행정·산업 분야에 걸쳐 안산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는 파리 동부행정구역 소속 쉘안 르 컴페니 공연단이 참여해 성공적인 교류 사례를 남겼다. 앞으로도 국제거리극축제 상호 초청과 파리 동부행정구역의 한국예술관광센터(Marne & Bois Korea Arts Tourism Center) 개관 등을 통해 문화 교류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안산시 대표단은 파리 동부행정구역 본부를 방문해 지역 행정과 정책 운영 방식, 주요 시설 등을 견학하고, 공동 프로젝트와 문화 교류 기회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내년도 개관을 앞둔 한국예술관광센터 현장을 둘러보며 전시·공연·워크숍 계획과 공공 공간 활용 방안 등을 모색했다.

한편, 안산시와 파리 동부행정구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제·문화적 발전과 시민 체감 성과를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의지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이민근 안산시장(오른쪽 세번째)이 파리 동부행정구역 본부에서 프랑스 파리 동부행정구역과 우호 협력도시 관계 수립 합의서를 체결하고 있다.

윤성용 기자

대학생과 시민이 함께... 안산유니온페스티벌 11월 1일 개최

안산 대학생 한 자리에 청춘 빛나고 시민이 하나 되는 안산의 특별한 하루

안산시는 오는 11월 1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대학생이 함께 만드는 축제의 장 '제3회 안산유니온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빛나는 청춘, 마음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행사는 안산시와 관내 대학(▲서울예술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안산대학교 ▲한양대학교 ERICA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이 공동 주관한다. ‘안산 대학 연합 학생 축제추진단’의 주도 아래 대학생 스스로 기획·운영하는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2023년부터 시작해 올해 세 번째를 맞는 안산유니온페스티벌은 대학생의 자율적 참여와 협력 속에 성장해 온 안산 대표 청년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축제에서는 다

양한 프로그램과 화려한 공연이 마련돼 대학생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특별한 하루가 될 예정이다.

행사는 대학 간의 스포츠 대항전 ‘유니온 리그’로 막을 연다. 축구와 이 어달리기 종목에서 각 대학 대표선수가 뜨거운 승부를 펼치며, 청춘의 에너지를 한껏 발산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유니온 스타’에서는 대학생들이 숨겨온 끼와 열정을 무대에서 유감없이 발휘한다.

이어 인기 가수들의 초청 공연도 펼쳐진다. 대표 감성 록 밴드 넬, 믿고 듣는 뮤지션 윤하, 독보적인 콘셉트와 실력으로 주목받는 걸그룹 하이키(HI-KEY), 글로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보이그룹 EPEX, 그리고 서울예대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김수영까지 화려한 라인업이 기다리고 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대학생들이 함께 준비한 ‘대학연합 퍼포먼스’가



이선희 문화체육관광공장이 14일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된 10월 정책브리핑에서 ‘안산페스타’와 ‘안산유니온페스티벌’ 개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정희재 기자

펼쳐진다. 하나의 마음으로 뭉친 안산 청춘들의 메시지를 전한 후, 열정의 밤을 디제잉 불꽃놀이로 피워내며 피날레를 장식한다.

이 밖에 ▲시 정책과 대학을 홍보하

는 부스 ▲학생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체험형 참여 부스 ▲푸드트럭 ▲버스킹 공연 등이 행사장을 가득 채울 예정이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안산페스타 2025’ 안산의 가을을 물들일 대축제... 23일 개막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화랑유원지 및 안산 와~스타디움 일대서

안산시의 가을을 풍성하게 물들이는 통합축제가 이달 23일부터 막을 올린다. 안산시는 오는 23일(목)부터 26일(일)까지 나흘간 안산화랑유원지 및 와~스타디움 일원에서 시 통합 축제 ‘안산페스타 2025’를 개최한다

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안산페스타 2025는 시기별·지역별로 분산돼 있던 축제를 하나로 묶은 가을 대표 통합축제 브랜드다. 전통과 현대, 예술과 체육, 시민 참여와 먹거리가 함께 어우러지며, 시민과 안산을 찾는 관광객 모두에게 풍성한 가을의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의 첫째 날인 23일(목) 화랑유원

지 제3주차장에선 국내외 거리예술가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안산거리예술마켓’이 열리고 ASAM 포럼 등 다양한 공연·전시 홍보부스가 마련된다.

둘째 날인 24일(금)에는 안산 와~스타디움 보조경기장에서 ‘제14회 장애 학생 체육대회’가 개최된다. 관내 장애 학생들이 육상·풋살·한궁 등 다양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고 화합과 도전의 의미를 되새긴다. 화랑유원지

야외공연장에서는 시민과 청년이 함께 즐기는 ‘락(Rock)&썰 페스타’가 열려 열정으로 가을밤을 뜨겁게 달군다. 25일(토)은 와~스타디움 서측 잔디광장에서 ‘2025 안산 펫 페스티벌’이 개최되며, 화랑유원지 인라인스케이트장과 대공연장에서는 ‘안산음식문화제’와 ‘평생학습 한마당’이 동시에 진행된다. 음식문화제는 안산 향토음식과 전통 장 만들기 등 체험과 시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평생학습 한마당에서는 다양한 학습 성과와 체험을 선보인다.

26일(일) 축제의 피날레는 ‘제6회 김홍도축제’가 장식한다. 원형무대, 단원각, 공연장 등에서 국악·마당극·

지역 예술 공연이 이어지고, 조선 말 타기 체험·마술·사생대회·벼 타작·전통 놀이 등 가족 단위 시민이 함께 즐길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박해철 의원 “발전공기업 통합, 공공에너지 체계 재편 통한 공공성 확장의 방향으로 이뤄져야”

단순 구조조정과 사업축소 지양하고, 사회적 대화 통해 갈등 최소화해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병)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발전공기업 통합 논의 방향을 언급하며 “통합은 단순 구조조정이나 사업축소가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공에너지체계 재편을 기조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러한 과정이 통합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 만큼, 재생에너지 중심의 공공 에너지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며 “탄소중립 목표와 연계된 합리적 통합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통합은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석탄 중심 발전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며 “의원님 통합방향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박해철 의원은 끝으로 “정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발전공기업 통합 논의 방향을 언급하며 “통합은 단순 구조조정이나 사업축소가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공에너지체계 재편을 기조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이민근 시장은 ITS사업 비리 의혹에 즉각 해명하라” 촉구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경찰 수사받고도 묵묵부답 명확한 입장 밝히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시켜야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대표의원 최진호) 15일 이민근 시장이 안산시 ITS(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비리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과 관련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 행정의 최종결재권자인 시장이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것은 안산시 행정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며,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얼마 전 언론에서 보도된 “사업 편의 대가로 제3자를 통해 A 시장에게 금품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는 내용의 당사자가 이민근 시장이었다는 사실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산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안산시의회 청사 앞에서 이민근 시장이 안산시 ITS(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비리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과 관련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인 비위가 아닌 시정의 청렴성과 정의를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더 이상의 침묵과 회피는 시민 불신을 키울 뿐이며 관할 경찰서에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 누구에게도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

최진호 대표의원은 “ITS사업 비리로 이미 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졌는데 시장까지 연루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대단히 충격적이다”라며 “안산시는 이와 관련 명확한 입장표명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

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감시자이자 책임 있는 의회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이민근 시장,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설명서에 대한 입장문 발표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이민근 시장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자 이민근 시장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 시장이 밝힌 입장문 전문이다.

입 장 문

금일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이 발표한 성명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공무국외출장 가운데 일방적인 의혹 제기과 성명서 발표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내용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뇌물 수수 등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귀국 후 수사 상황과 절차가 정리되는 대로 명확한 입장을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신뢰를 지키고 시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안산시장 이민근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의회 3개 상임위원회 市와 간담회 개최

기획행정·문화복지·도시환경경제, 지난 14~15일 299회 임시회 앞두고 회기 안전 등 협의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최근 제299회 임시회를 앞두고 안산시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한명훈) 위원들은 지난 15일 기획행정위원장실에서 시 청년정책관 등 7개 부서 관계자들과 총 10건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 측은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 일요일 운영 관련 보고와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안산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참여기관 협약 동의안, 안산시-영동군 친선결연 협약 보고의 건 등을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위원들은 보고된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 일요일 운영 관련, 일요일에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일요일 운영에 따른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해서는 상권활성화재단이 진행하는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내실이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안산시-영동군 친선결연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친선결연 협약에 따른 결연 시·군에서의 안산 시민의 혜택이 증대될 수 있는 친선결연 협약 추진을 요청했다.

이보다 앞서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설호영) 위원들도 지난 14일 문화복지위원회실에서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문화예술과 등 시 5개 부서 관계자들로부터 8건에 대해 보고 받고 위원회 의견을 전달

했다. 위원들은 이날 2026년도(제)안산문화재단 출연안, 안산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에 대해 설명 받았다.

그 가운데 성호장 재현 사업에 대해서는 실학자 성호 이익 선생의 가옥을 재현함으로써 역사와 문화 자산을 계승하고 시민의 문화·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인만큼 소요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위원들도 14일 도시환경위원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철도경제자유구, 환경정책과 등 11개 부서 관계자들과 총 15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안건에는 본오2동 공공복합형사 건립 추진,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확정 보고, 안산 건설기계임시주거장 조성 추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위원들은 본오2동 공공복합형사 건립 추진과 관련해 공사비 증액 사유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시기가 지연된 이유에 대한 질의였으며,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확정 보고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투자유치가 안산시민의 실제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산 건설기계 임시주거장 조성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설치 운영 중인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을 건설기계 임시주거장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받고 위원회 의견을 전달

김태창 기자

대규모 해킹 사태 중 KISA, 제주도 단체 워크숍 강행

김현 의원 “국민 불안한데 노사화합 명분은 궁색”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을 총괄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임직원들이 KT와 롯데카드의 대규모 해킹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던 8월 초부터 9월 중순 사이, 단체 워크숍을 기획하고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ISA 임직원 62명은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간 제주도에서 ‘노사 화합 워크숍’을 진행했다. 전체 정규직 500명(2025년 6월 기

준) 중 12%가 넘는 인원이 출장을 이유로 자리를 비운 셈이다.

이들은 개별 항공편으로 이동해 호텔에서 ‘노사 화합의 밤’ 행사를 열었으며, 기관은 이를 위해 1,014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노동조합 소속 직원 48명의 여비는 조합비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워크숍 일정이 해킹 피해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시점과 정확히 맞물렸다는 점이다. 워크숍이 열린 9월 18일은 롯데카드가 297만여 명의 회원 정보 유출을 공개 사과한 날이자, KT가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KISA에 신고한 날이었다.

부처는 9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KT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이후 9월 19일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4일에는 KISA와 KT를 상대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ISA는 외부적으로 “전사적 대응”을 약속한 직후, 같은 시기 제주도 워크숍을 강행했다.

김현 의원은 “대규모 해킹 신고가 잇따르는데도 KISA 임직원들이 ‘노사 화합’을 명분으로 제주도를 다녀왔다”며, “대검찰청 수사관 출신의 이상중 KISA 원장이 안일한 인식으로 국민 불안 해소는 뒷전으로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KISA는 사이버 보

안의 최후의 방어선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존재 이유를 잃게 된다”며 “이번 사태를 단순한 내부 행사 문제가 아닌 위기 대응 체계 전반의 관리 부실로 보고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통신·금융 부문에서 잇따른 해킹 피해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 방어망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부와 KISA는 조속한 개선과 함께 상시 비상대응체계 구축, 실시간 사고 공유 시스템, 기관장 보고 의무 강화 등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구봉도 모노레일 조성 사업 또 해 넘길 듯… 추후 사업추진도 불투명



단원구 대부북동 1997번지 일원 구봉공원에 들어설 예정인 구봉도 모노레일 조성사업이 상당기간 늦어질 전망이다. 사진은 모노레일 화차지점인 개미하리아치교의 모습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당초 계획, 관광활성화 차원 볼거리 제공위해 추진 지역 주민, 구봉도 모노레일 반드시 필요하다 주장

안산시 관광과가 구봉도에 추진중인 모노레일 조성 사업이 당초계획보다 상당기간 늦어질 전망이다. 14일 안산시와 구봉도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당초 스카이버이

크 조성 사업이 추진되던 구봉도 개발계획이 2023년 모노레일 사업으로 변경됐지만 구봉도 모노레일 사업은 아직까지 진행되는 듯 했다. 그러나 2024년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승인으로 한 차례 늦어졌고 현재 수변공원인 구봉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으로 또 한 차례 늦어졌다. 다행히 올해말이면 도시관리계획은 변경이 확실해 보이지만 향후 사업방식 결정 등 또 다른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사업방식이 결정되더라도 사업체를 결정하는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입지 또한 추가부지 필요성 등이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내년 착공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광과 관계자는 “당초 모노레일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는 현재처럼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막상 사업에 착수해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늦어지게 되었다”며 “최대한 빨리 구봉도 모노레일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우리시의 기본입장이다”고 말했다. 한편 구봉도 모노레일 조성은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레저형 관광인프라 조성을 통해 대부도 자연환경과 함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단원구 대부북동 1997번지 일원 구봉공원에 모두 150여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2.5km의 모노레일, 차량 약 10대, 기점과 화차점이 필요한 탑승장, 조경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구봉도상가변영회, 기반시설 확충이 상권활성화의 지름길



구봉도상가변영회 10월 월례회가 13일 오후 화이트아일랜드 세미나실에서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김학운 회장이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월례회사 김학운 회장 ‘강조’ 회원 비회원간 차등도 필요

구봉도상가변영회(회장 김학운) 10월 월례회가 13일 오후 화이트아일랜드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월례회의에서는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골목상권 소비촉진 행사’에 대해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방안과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또 좋은 아이디어들을 공유하고 향후 변영회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상호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를 선순환 하는 방안, 대부도를 대표하는 구봉도 상권을 두고 추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구봉도에 추진예정인 모노레일 설치도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루빨리 첫삽을 뜰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자는 데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변영회 회원들은 대부도의 고질병인 주말 교통문제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혼연일치가 되어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시는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특히 변영회 회원과 비회원간 차등을 두어 정회원이 대접받는 분위기를 만들자고 회원들은 결의했다.

김학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비고 오고 기온도 많이 낮아져 건강을 잘 챙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참석해 주 감사하다”면서 “관광활성화는 주변 기반시설이 얼마나 잘 시설되어 있느냐에 따라 판가를 날 수도 있는 만큼 구봉도 상가와 펜션들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제2순환고속道 ‘인천~안산 구간’ 첫 삽… 이르면 내년 하반기 착공

송도~오이도 거쳐 평택시흥간 고속도로와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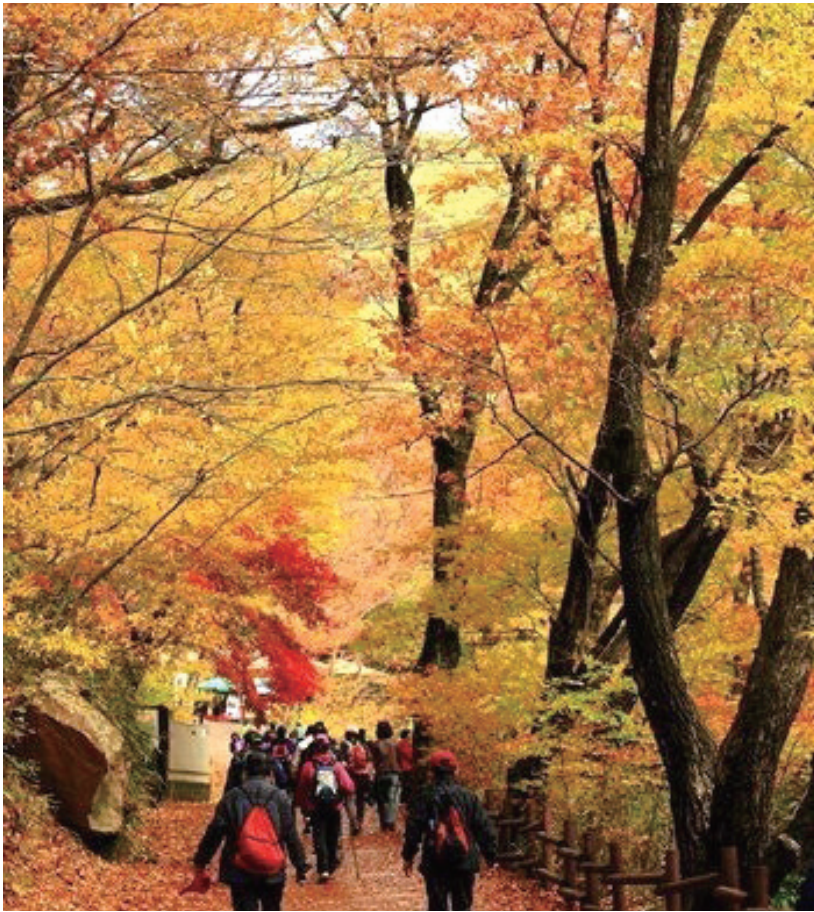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제2순환선) 구간 가운데 유일하게 착공이 이뤄져 온 인천 송도~안산 노선에 대한 공사가 부분 착공 방식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1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2순환선 인천~안산 노선 가

운데 시화나래나들목(IC)~남송도 IC(8.4km) 구간을 우선 착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안산 구간 전체 사업은 총 사업비 약 1조7000억 원이 투입되는 길이 19.8km 규모로, 1구간(시화나래IC~남송도IC)과 2구간(남송도IC~인천

남향)으로 나뉜다. 현재 1구간은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절차를 밟고 있다. 재조사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나 2027년 상반기(1~6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재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

자는 “2구간은 습지 보호등 환경 문제 때문에 아직 노선이 정해지지 않아, 1구간부터 우선 개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1구간이 완공되면 인천신항 일대의 극심한 차량 정체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의 경우는 송도신도시에 접근이 쉽고 인천공항 이용시간도 그만큼

‘저널 트레킹 투어’ 두 번째 코스 ‘속리산 단풍’ 세조길 걷기



오는 22일 오전 7시 대부도저널 주차장에서 출발 오는 길에 단양 대추 축제장 들러 함께 즐길 예정

대부도저널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저널 트레킹 투어’ 두 번째 트레킹이 오는 22일 진행된다. 이번 트레킹은 속리산 단풍을 즐기면서 걷는 프로그램으로 세조길을 걷고 범주사 일대를 관람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22일 오전 7시 상동 소재 대부도 저널(단원구 상동로 97) 주차장에서 출발한다. 트레킹을 마친 후에는 현지에서 점심을 함께 나누고 인근에서 펼쳐지고 있는 단양 대추축제 현장

을 방문, 필요한 분은 단양 대추도 구입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축제도 즐기면서 하루를 만끽하는 일정이다. 이번 속리산 단풍 트레킹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은 대부도저널(032-880-9994)이나 이선화 과장(010-2535-2728)에게 연락하면 된다.한편 첫 번째 ‘저널 트레킹 투어’는 지난 달 10일 강원도 철원 소이산 모노레일과 횡불전망대를 다녀오는 코스였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도 단신

대부도 파크골프대회(바다해솔클럽)

오는 31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대부도 파크클럽의 바다클럽과 해솔클럽이 골프대회를 갖는다. 장소는 메타쉐파이어 구장이다.

대부도저널 김태창 편집국장 말 한술 곁혼

일시: 2025. 10. 26. 일
시간: 오후 4시
장소: 더 채플 옛 논현(6층 라포레움)
서울 강남구 논현로 549(역삼동, 9호선 언주역 7번 출구 앞 202m)
※ 곁혼식에 참석하실 분은 당일 주차가 혼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연락처: 김태창(010-4900-4152)

미용봉사 무료이용(염색, 커트)

오는 10월31일 금요일 대부제일교회(032-886-3900)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용봉사가 무료로 실시된다. 염색은 맛내기과 새치염색이며 대부도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제2순환선은 김포~파주~양주~포천~양평~이천~오산~안산~인천 등 수도권 외곽 260km를 잇는 대규모 순환도로 사업이다. 현

재 대부분 구간이 개통됐거나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인천~안산 구간만 유일하게 착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부산을 향한 안산 학생선수들의 거침없는 열정

안산교육지원청 김수진 교육장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안산 소속 출전 선수 격려

안산교육지원청은 10월 14일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종목별 강화 훈련장을 방문해 학생 선수들을 격려하고 훈련 상황과 안전을 점검했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등 부산광역시 전역 총 82개의 경기장에서 열린다. 전국에서 3만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체육 인재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본 대회에서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는 고등학교 학생 선수는 159교에서 총 686명이다. 이 중 안산 소속 학생 선수는 4개교에서 총 16명으로, 경기도 대표 선발전을 거쳐 본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영광된 기회를 얻었다.

안산 소속 대표 선수들은 육상을 포함해 총 5개 종목에 참가하며, 학교



안산교육지원청은 10월 14일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종목별 강화 훈련장을 방문해 학생 선수들을 격려하고 훈련 상황과 안전을 점검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운동부와 지역 기반 스포츠클럽(G-스포츠클럽)이 합심해 학교 및 각 종목 단체의 훈련 계획에 따라 체력 증진과 기술 강화 훈련에 힘을 쏟고 있다.

김수진 교육장은 “체육 활동을 중심

으로 한 안산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 관계가 이번 전국체육대회 안산 소속 경기도 대표 선수들의 선발에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훈련 과정에서 컨디션 조절과 부상 관리에 힘써 이

번 대회에서 체육인으로서의 진로에 후회 없는 한 획을 그기를 바란다.”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 고든병원, 척추 전문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



안산 고든병원이 황주민 원장 취임 2년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황주민 원장 취임 이후 빠른 성장세 보여

안산 고든병원(병원장 황주민·척추 신경외과 전문의)이 황 원장 취임 2년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1월 개원한 고든병원은 2년 전인 2023년 10월 황주민 원장이 병원을 인수한 이후 척추 수술의 정밀성과 환자 중심 진료로 강화하며 연간 200례 이상의 척추 수술 실적을 기록, 지역을 대표하는 척추 전문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산 고든병원은 최근 병원 로고(CI)를 새롭게 변경하며 ‘정밀 의술과 따뜻한 진료’라는 병원의 철학을 시각적으로 담았다.

또한 환자 맞춤형 식단 컨설팅 프로그램과 입원 환자 영양관리 시스템을 도입, 환자 회복률을 높이고, 진료 만족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고든병원은 지역사회를 위한 무료 무릎 인공관절 수술, 장애인 의료지원 봉사 등 공공의료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아, 홍콩·멕시코·우즈베키스탄 등지의 신경외과 전문의들이 황 원장의 최소침습 척추 수술을 참관하고 최근에는 해외 환자들의 내원도 꾸준히 증가하며 고든병원은 국내외 의료계가 주목하는 척추 전문 의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 매화 거점형 놀봄센터에서 양궁, 대학연계, 씨름 프로그램 시작



안산교육지원청이 주관하고 매화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2025년 안산 매화 거점형 놀봄센터’의 양궁, 대학연계, 씨름 프로그램이 오는 10월 15일부터 선착순 모집을 시작한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 관내 초등학교 고학년 초등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

안산교육지원청이 주관하고 매화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2025년 안산 매화 거점형 놀봄센터’의 양궁, 대학연계, 씨름 프로그램이 오는 10월 15

일부터 선착순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초등생들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에게 다채로운 학습 기회를 선사하고자 기획되었다.

총 세 가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모든 과정은 무료로 제공된다. 먼저 양궁 교실은 10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열리며, 한양대와 함께 하는 ‘창의력 쑥쑥! 디자인 놀봄 학교’는 같은 달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매주 수요일 진행

될 예정이다. 씨름 교실도 10월 28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참여할 수 있다.

모든 수업은 오후 3시부터 4시 20분까지 두 차시 동안 진행되며, 대상은 안산 소재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는 각 20명의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며, 이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진)은 “이번 사업이 학부모님들의 돌봄 걱정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거점형 놀봄센터에서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가를 원하는 경우, 가정통신문의 링크 주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는 10월 17일 개별 안내된다.

다만 별도의 통학 차량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학생들은 스스로 거점형 놀봄센터까지 이동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400-1590)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도시공사, 다국어 안내로 외국인 주민 체육시설 편의성 ↑

선부다목적체육관 5개 언어 안내 제공...공공 서비스 접근성 향상 기대

안산도시공사는 선부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주민의 편의를 위해 다국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다국어 안내는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5개 언어로 제공되며, 시설 내 안내판 외에도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다국어 안내 서비스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

안내 내용은 시설 운영시간, 이용수칙, 헬스기구 사용법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헬스기구 사용법은 영상으로 제공돼 러시아어와 중국어를 사용하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단원구 선부동에 위치한 선부다

목적체육관은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러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안산시 등록 외국인 수는 약 5만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8%를 차지하며 경기지역에서 외국인 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다.

이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안산도시공사는 올해 4월부터 외국인 주민의 체육활동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언어장벽 없는 안산’ 다국어 안내 서비스를 추진해 왔다.

안산도시공사는 선부다목적체육관을 시작으로, 현재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 전반에 다국어 안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정조의 효심과 안산의 역사, 시민과 함께 잇는다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및 안산읍성문화예술제 개최 10월 25일 안산동 일원

안산시와 안산문화원은 오는 10월 25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안산읍성 일원에서 ‘2025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및 제15회 안산읍성 문화예술제’를 연다. 이 행사는 조선시대 읍지로서 역사적 의미를 지

닌 안산읍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1797년 8월, 정조대왕이 현릉원 행차 당시 안산행궁에 머물렀던 사실을 기반으로 효심과 개혁정신을 기리고, 안산읍성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자원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능행차 재현은 안산초등학교에서 출발해 안산동 일대를 돌며 안산읍성까지 약 1km 구간에서 진행된

다. 조선시대 의복과 장신구, 마필(馬匹)을 고증에 맞게 준비해 장엄한 행렬을 선보이고, 도착 후에는 정조와 백성의 소통을 상징하는 격쟁 퍼포먼스가 극화 형식으로 펼쳐진다.

이날 같이 진행되는 제15회 안산읍성 문화예술제는 올해 전국 안산읍성 휘호대회와 수암마을 그리기 공모전을 함께 열기로 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 폭을 넓힌다. 특히 오후에는 시민

들이 기다려온 천년안산음악회가 이어진다. 1부 무대에는 김범룡, 양혜승, 김승진, 이규석 등 대중가수들이 출연해 축제의 열기를 끌어올리고, 2부는 안산동 주민자치회가 꾸미는 무대로 채워진다. 행사장 곳곳에는 마을사진전, 전통의상 체험, 수암산책, 주민참여 체험부스 등이 운영되며,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도 준비돼 세대를 아우르는 지역 축제로 꾸며진다.

안산읍성은 조선시대 군사·행정 중심지였으며, 현재는 복원과 문화행사를 통해 시민이 역사와 만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축제는 안산시 문화예술과를 비롯하여 문화관광과, 안산예총, 안산동 주민자치회 및 직능단체 등 지역 단체가 함께 협력해 추진된다.

안산문화원 민화식 원장은 “정조대왕 능행차와 안산읍성문화예술제는 안산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며 “지역 공동체가 함께하는 문화도시 안산의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선부2동 새마을회 ‘어르신과 사랑의 짜장면 데이’



단원구 선부2동 새마을회는 지난 14일 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어르신과 함께하는 사랑의 짜장면 데이’를 열고, 관내 어르신 150여 명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오전 한때 비가 내렸으나, 행사 시작 무렵 날이 개며 예정대로 진행됐다. 새마을회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네 곳의 경로당 어르신들을 초청해 짜장면과 떡, 과일 등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제공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아외에서 함께 먹으니 짜장면이 더 맛있게 느껴지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소감을 전했다.

손팔석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은 “아침에는 비가 내려 걱정했지만, 다행히 날이 개어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며 “어르신들의 환한 미소를 보니 마음까지 따뜻해졌다.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신길동, 노인의날 기념 ‘어르신들을 찾아가孝’



단원구 신길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4일 제29회 노인의날을 맞아 신길동 어르신들을 찾아가孝(효) 경로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자 마련된 이번 경로잔치는 거동 불편 어르신, 조운호 휴먼시아4단지경로당 회장은 “곳은 날씨에도 직접 찾아와 정성 어린 상차림을 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어르신들을 보니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임지연 지사협 위원장은 “많은 어

신들을 한자리에 모실만한 장소가 많지 않아 고민하던 중 찾아가는 케이터링 서비스로 더 많은 어르신의 식사를 챙겨드릴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이끌어 주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후원 활동을 적극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종인 신길동장은 “많은 양의 식사를 직접 배송해 주신 지사협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웃어른을 공경하고 섬기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원곡동, 노인의 날 기념 찾아가는 경로 행사 개최



단원구 원곡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4일 제29회 노인의 날을 기념해 ‘원곡동 찾아가는 경로행사’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대규모 행사를 대신해 찾아가는 경로 행사로 진행됐다. 원곡동 행정복지센터와 직능단체(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경로당 6개소와 독거노인 가구 등 350곳을 직접 방문해 도시락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이날 도시락을 받은 한 어르신은 “

요즘 날씨가 외출하기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챙겨주시니 마음이 따뜻하다”며 “관심 가져주는 분들이 있어 힘이 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손석주 원곡동장은 “그동안 지역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어르신들께 작지만 기쁨을 드려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원곡동 ‘깨끗하고 안전한 원곡동 만들기’ 나서



단원구 원곡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 치안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원곡동 다문화특구 일대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원곡동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원곡파출소, 원곡다모아, 직능단체 등 민·관이 협력해 추진하며, 주요 목표는 무단투기 근절과 ‘내 가게 앞은 내가 치우기’ 운동 확산이다. 캠페인 기간에 주민과 상인들에게 홍보물과 안내문을 배포하고, 주요 거리와 골목에서 환경정비

활동을 병행한다.

박훈순 원곡파출소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과 관리에 주민들의 협조가 필수”라며 “공동체 치안 강화와 환경 개선을 병행하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석주 원곡동장은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특별한 지역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과 상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자연어린이집, 안산시 이동에 사랑의 후원금 기탁



상록구 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자연어린이집(원장 조은경)으로부터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후원금 47만 7천원을 기탁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전달받은 후원금은 자연어린이집 아동들이 어린이집 바자회 행사 수익금을 모아 기탁한 것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에 수익금을 4년째 이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하고 있다.

조은경 원장은 “아동들이 바자회 행사를 통해 수익금을 후원함으로써 어려

운 이웃을 돕는 나눔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동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박옥란 이동장은 “아동들이 나눔과 기부의 문화를 배워 참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2022년부터 4년째 후원금을 기탁해 준 교직원과 아동들에게 감사하고 기탁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호수동, 노인의 날 기념 ‘호수동孝한마당’ 개최



단원구 호수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4일 GD컨벤션에서 제29회 노인의 날을 맞아 ‘호수동孝한마당’ 경로잔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경로잔치는 호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회 단체원들이 식사 배식과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김억중 레이크타운푸르지오경로당 회장은 “우리는 어른으로서 호수동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후손들의 삶에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며 “행복한 노년은 스스로 가꾸고 만들어가는 것

임을 잊지 말자”고 강조했으며, “오늘 개최된 경로잔치를 위해 애써주시고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미정 호수동장은 “오늘 경로잔치에 참석해 주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자존감 넘치는 노년을 위해 지역사회와 더 소통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여러분의 애·경사를 알려드립니다

대부도저널은 대부도 주민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종 애·경사 및 행사 알림, 회원모집 등 홍보할 내용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좋은 사람, 좋은 가게를 홍보하기 위한 칭찬소식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애·경사 및 행사 알림

알림 전화 : 032-880-9994 / 팩스 : 032-880-9961

대표메일 : dj250407@naver.com

광고문의

032.880.9994

대부도저널

메추리섬 매매

(주)리치개발 · 황금토목

차준환 M: 010.5558.6665

토지 매매

(1)매매가 8억, 방2, 본인 주거 및 펜션가능한 물건 구함
(2)대부동동(영전마을) 대송단지 앞 맹지. 답. 350평.
평당 35만원

김선중 공인중개사 M: 010.3199.4992

대부도 핫플
오션뷰 브런치카페
카캉스

조재숙 M: 010.2492.1800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길로 1501-1

HIDDEN PENSION
안산시 단원구 대호1길 19 M : 010.9913.8956

히든
펜션
최은숙

Athena Pension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622-5

전 객실 바다전망 테마가 있는 유럽풍 펜션
아테네펜션
차준경 M: 010.5353.2755

K3 바다낚시터

최병희 M. 010.5230.853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643-35

용담바다낚시터

오준태 M. 010.5285.0667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용담바다낚시터

등대바다낚시터

이한중 M. 010.3738.661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187-4

미래기획

25년 경력 간판. Led채널. 현수막. 씬팅. 현수막
이 병 철 M: 010.9366.9699

행정사사무소

박정탁 M: 010.2378.712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한주토목측량설계공사

김장식 M. 010.5345.985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40-1 (대부북동)

최욱진 세무회계사무소

최욱진 T: 031.8042.6670

안산시 상록구 28,201호(본오동,보노피아빌딩)

선재낚시공원

조부형 M. 010.8813.0515

대부도 주민자치회

위원 황진 M. 010-7632-1150

(주) 황금토목측량설계공사

유재용 M. 010.3433.46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로1288 (대부북동)

GS25 대부포도점

빈호준 M. 010.9220.203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667(대부남동), 202호

말부흥 어촌계

계장 신준선 M. 010.7340.5511

바지락마을손칼국수2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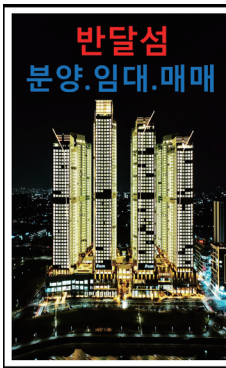
백영태 M. 010.4403.449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해안로42 (대부북동)

리라조경

박용복 M. 010.3703.9300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재로 34번길 23, 103호

 (주)대동토지개발

양금순 M: 010.8722.5095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 633, 118호

규현공방

수족관 제작에서 관리까지 맡겨주세요
조규현 M: 010.4071.2797



경인서부수협 대부지점

032.886.008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101

대부 우체국

032.886.00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93

군자농협 대부지점

032.886.31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469-13

인천강화웅진
축산농협 대부지점

032.886.008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101

광고문의

032.880.9994

대부도저널

영흥면 민간협의회-영흥발전본부-영흥면사무소간 상생협약 체결

웅진군 영흥면(면장 장혁준)은 지난 14일, 영흥면 민간협의회(영흥면 16개리 노인회, 주민자치회, 이장협의회, 부녀회, 청·장년회)와 영흥발전본부 및 영흥면사무소가 함께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 및 상호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영흥면 늘푸른센터 3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200여명의 협의회 관계자 및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민·관·공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주민과 발전소 간의 상호 이해증진,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 투명한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생협약에 참석한 문경복 군수는 “이번 상생협약은 지역주민과 영흥발전본부 및 영흥면사무소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협력의 시작”이라며, “주민과 행정, 발전소가 함께 실천 가능한 협력과제를 만들어 지역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웅진군 영흥면은 지난 14일, 영흥면 민간협의회와 영흥발전본부 및 영흥면사무소가 함께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 및 상호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이어서 “영흥면 상생협의체가 앞으로 지역 발전의 구심점이 되어줄 것”이라며, “영흥 주민 모두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함께 걸어가는 상생의

길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영흥면 상생협의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공동과제 발굴, 정기

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소통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웅진군의회 제252회 임시회 개최

오는 22일까지 7일간

웅진군의회의장 이의명)가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10월 16일에 개최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에서는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이며, 20일 21일에는 각 위원회를 통해 의원발의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조례안 및 승인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끝으로, 10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웅진군의회의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김태창 기자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공사 ‘교량명칭’ 선정 추진

북도면 주민 등 호응도 증가

웅진군은 15일, 2026년 개통 예정인 ‘영종~신도 평화도로’교량 명칭 선정을 앞두고, 북도면 주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을 통해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본 교량은 인천 중구 영종도와 웅진군 북도면 신도를 연결하는 연륙교로, ‘서해남북 평화도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왕복2차로, 총 연장 약 3.2km, 총사업비 약 1,550억원이 투입되어 오는 2026년 6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2026년 개통되는 ‘영종~신도 평화도로’의 건설 목적을 잘 나타내고 신도의 지역적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 선정을 위해 교량명을 신중히 정해야 한다”며, “특히, 섬

과 육지를 연결하는 연륙교의 다리명칭 명명은 그 기준은 없으나, 섬 주민들이 쉽게 식별하고, 섬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명확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섬의 지역명을 반영하는 것이 기본원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은 현재까지 신도평화대교, 신도대교, 평화대교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웅진군 및 중구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인천시 지명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공식 교량 명칭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본 교량이 개통되면 신도와 인근 섬지역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섬 주민의 교통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종~신도 평화도로’교량 명칭 선정을 앞두고, 북도면 주민들의 종합적인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인천 중구 영종도와 웅진군 북도면 신도를 연결하는 연륙교다. ‘서해남북 평화도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왕복2차로, 총 연장 약 3.2km, 총사업비 약 1,550억원이 투입되어 오는 2026년 6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윤성용 기자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2025년 농어촌 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점검

웅진군은 13일, 7개면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 대상으로 민박 서비스의 안전사고 예방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2025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민박사업자는 연간 3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하며, 미이수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교육은 올해 8월부터 11월 까지 540명의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민박의 신고운영 관련

제도교육을 비롯하여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 교육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관내 민박사업자들은 올해 안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시 관련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군은 앞으로도 민박사업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대부도 저널 트레킹 투어 회원모집

‘대부도저널’에서 매월 1회씩 전국 유명 트레킹 장소를 투어하기 위한 ‘저널 트레킹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걷는 것을 좋아하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두번째 저널 트레킹

1. 일시 : 2025년 10월 22일(수) 오전 7시 출발 (오전 6시 50분까지 집결)
2. 장소 : 속리산 단풍 (세조길 & 법주사 일대 등)
3. 모집 인원 : 선착순 40명 (여행자 보험위해 주민번호 필요)
4. 연락처 : 신문사 032-880-9994 / 이선화 과장 010-2535-2728
5. 참가비 : 1인당 5만원 (식비, 관광버스 왕복, 간식, 물, 여행자보험 포함)
(계좌 : 농협 352-2309-3205-43. 예금주 : 이선화 / 입금 후 연락바람)
6. 집결장소 및 시간 : 대부도저널 주차장 (단원구 상동로 97)

시화호를 세계 해양관광 명소로, 경기도 ‘해양전략 국제포럼’ 열어

안산시·화성시·시흥시와 공동협약체결 및 BI 선포

시화호를 세계적인 해양관광과 레저스포츠 명소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놓고 관련 지자체와 세계적인 해양레저 전문가, 국내 학계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는 행사가 열렸다.

경기도는 16일 시흥 웨이브엑스 호텔에서 ‘2025 시화호 해양 전략 국제포럼’을 열고 시화호의 미래 해양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국제포럼에는 경기도와 안산시·화성시·시흥시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뉴욕과 싱가포르의 해외전문가, 해양스포츠관광레저 분야의 국내전문가 및 인플루언서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이날 안산시·화성시·시흥시와 공동협약을 체결하며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의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공동협약에는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화 ▲지역별 시화호 활성화 사업 추진 ▲공동행사 및 교류협력 ▲시화호 브랜드 공동활용 등 ‘시화호 해양레저 관광 생태계’ 구축을 통해 시화호 일원의 선순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시화호 통합브랜드(BI)가 이날 행사장에서 공식 선포돼 앞으로 시화호를 대표하는 통합 이미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조연설에는 국내외 전문가 3인이 참여했다. 양광식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시화호 30년, 우리가 꿈꾸는 미래’



시화호를 세계적인 해양관광과 레저스포츠 명소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놓고 관련 지자체와 세계적인 해양레저 전문가, 국내 학계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는 행사가 열렸다. 경기도는 이날 안산시·화성시·시흥시와 공동협약을 체결하며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의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를 주제로 시화호의 역사와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랜디 피어스(Randy Peers) 뉴욕 브루클린상공회의소 회장은 ‘브루클린의 도시 변혁: 제조업에서 뉴욕시 창조경제의 중심지로’를 발표하며 산업도시의 재생과 창조경제로의 전환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오우 케난(Ou Kenan) 싱가포르 모로우 건축회사 전무이사는 ‘똑똑한 도시 계획: 싱가포르의 도시변혁으로부터 얻은 교훈들’을 통해 시화호의 도시계획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특히 오우 케난은 시화호를 개발할 때 컨크리트워를 두고 3개시가 공동

으로 개발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싱가포르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이후 세션에서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관광트렌드 분석과 시화호 주변 웰니스 발전전략’, ‘친환경 낚시레저관광 시범 클러스터 구축’ 등의 주제가 논의됐다.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시화호의 재발견’ 토크콘서트에서는 배우 최송현 등 유명 인플루언서가 참여해 시화호의 가치와 가능성을 공유했다.

경기도와 안산시·화성시·시흥시는 중앙정부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시화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통합적 발전 전략을 통해 세계화를 선도할 계획이

다.

또한 해양레포츠, 해양치유, 관련장비 산업 등을 연계한 ‘시화호 해양레저 관광 생태계’ 구축으로 소통과 통합의 힘으로 시화호권의 선순환 지역경제 모델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생명의 호수로 다시 태어난 시화호가 경기도의 새로운 희망과 기회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이번 국제포럼과 관계기관 간 협약은 시화호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소통과 연대의 출발점이자, 시화호를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김동연, 햇빛소득 올리는 포천 마을 찾아 “마치미 모델 확대”

마치미 마을 해만 째깍해도 저절로 돈을 버는 곳 경기 RE100 최우수 마을

해가 째깍한 날이면 저절로 돈을 버는 마을이 있다.

태양광 발전 설치로 가구당 월평균 20만 원을 기본으로 받고, 월평균 7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은 0원이 됐다. 마을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는 마을 공동기금도 매월 60만 원 가까이 차곡차곡 쌓인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우금1리 마치미 마을 이야기다.

마치미 마을은 2015년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에 참여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마을주민 가운데 38가구가 132.12kW 규모의 자가용과 상업용 태양광시설을 설치했다.

2023년에는 33가구가 에너지기초소득 마을 사업에 참여하며 495kW 규모의 상업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이밖에도 경기도에서 하는 에너지 선도사업, 주택지원 사업 등에 25가구가 참여하며 39kW 규모의 자가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마치미 마을 주민은 총 96가구. 대다수 주민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사업에 참여 중인 셈이다. 마치미 마을은 총 702.12kW(자가용 166.2kW, 상업용 535.92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며 에너지자립 마을이 됐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후 마을 주민들의 소득이 달라졌다. 먼저 개인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63가구의 경우 월평균 7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며 사실상 전기요금을 0원으로 줄였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설치한 40.92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팔아 월평균 57만 원 규모의 발전수익도 생기고 있다. 이는 모두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된다.

에너지 기초소득 마을 사업에 참가한 33가구는 가구당 550만 원을 투자해 상업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2024년 6월부터 발전을 시작해 지난해 약 4천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 올해 1월부터는 가구당 월평균 20만 원의 햇빛소득(태양광발전소를 통해 전기를 거래소 등에 판매하면 투자금 대비 연 25% 이상의 배당금으로 받는)을 배당 받고 있다.

경기도에는 이렇게 에너지사업을 하고 있는 ‘경기 RE100 마을’이 마치미 마을을 비롯해 모두 473개가 있다.

‘경기 RE100 마을’은 도시가스 미공급 등 에너지 이용이 취약한 마을을 대상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30%, 시군 50%, 주민 자부담 20%로 비용을 분담해 ▲햇빛소득 창출 ▲전기요금 절감 ▲마을 공동기금 마련 등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열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로 포천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올해 최우수 ‘경기 RE100 마을’로 선정된 포천시 마치미 마을을 방문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

마치미 마을은 지난 7월 ‘도민 주도형 에너지 마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마을’로 선정됐으며, 이날 김동연 지사는 우금1리 마을회와 태양광 설비업체인 ㈜케이디솔라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경기도의회 ‘대한민국 SNS대상’ 8년 연속 수상

김진경 의장 “도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나부터 적극 소통할 것” 강조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친근함’과 ‘유용함’을 기반으로 한 SNS 운영 전략으로 전국 공공기관 SNS 운

영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회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비영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SNS 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이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SNS 시상식이다.

이번 수상으로 경기도의회는 의회 마스코트 ‘소원이’를 앞세운 창의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8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이어갔다.

마스코트 ‘소원이’는 ‘소처럼 성실히 일하는 도의원’, ‘도민의 소원을 이루는 도의원’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모두 담고 있으며, 인스타그램·블로그·페이스북 등 다양한 플랫폼을 오가며 활약하고 있다.

올해는 ‘소원이’의 스토리를 확장한 가족 캐릭터를 새롭게 개발해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양지개발 토지컨설팅사무소

토목공사 / 건축공사 / 보강토 시공 /

토지개발/ 토지분양 / 컨설팅

대표 김 상 준 H. 010-9393-5783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67-12(방조제길 113)

안산 대부도 '말봉 풀펜션타운' 분양 본격화 바다를 품은 힐링형 프리미엄 펜션단지 탄생

바다 도보 5분 거리·도시가스·8m 도로 등 완벽 인프라 갖춘 대부도 최고의 수익형 펜션부지



안산 대부도 바닷가에 프리미엄급 '풀펜션 부지'가 본격적으로 분양에 들어갔다. '말봉 풀펜션타운(옛 말봉바다낚시터 부지)'은 천혜의 해안 조망권과 뛰어난 접근성, 안정적인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고급 펜션단지로, 투자와 휴식이 공존하는 힐링형 부동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바다를 품은 최적의 입지... 도보 5분 거리 힐링 공간

이번에 분양되는 펜션부지는 대부도 바닷가에서 도보 5분 거리 내에 위치해 있어, 도심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해안 힐링 라이프를 즐기기에 최적의 입지로 평가된다. 단지 주변으로는 탄도항, 전곡항, 유리섬박물관, 구봉도 낙조전망대 등 주요 관광지가 밀집해 있어 사

계절 내내 풍부한 관광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탄도항 개발과 함께 전곡~제부 케이블카 개통으로 향후 관광객 유입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부도 유일의 풀펜션 단지형 부지... 도시가스·도로·상권 완비

'말봉 풀펜션타운'은 대부도 내에서도 보기 드문 공동 운영 관리형 풀펜션 단지로 조성된다. 전체 필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며, 단지 내 8m 폭의 도로가 확정되어 차량 이동과 주차가 편리하다. 또한 단지 안에는 편의점, 음식점, 커피숍 등 소규모 상권이 함께 형성되어 있어 숙박객뿐 아니라 투자자에게도 안정적인 부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높은 숙박수익 기대... 건폐율 인센티브까지

대부도는 최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건폐율 30%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건축 설계와 여유로운 부대시설 확보가 가능하며, 펜션 단지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풀펜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각 세대별 야외수영장, 테라스 구조로 설계가 가능해 차별화된 고급형 숙박 시설 운영이 가능하다.

바다 조망과 일출·일몰 모두 가능한 평지형 명당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부지 전역에서 탁 트인 바다 조망이 가능하며, 위치에 따라 일출과 일몰을 모두 감상할 수 있다. 평탄한 지형

의 평지형 부지로 건축 효율성이 높으며, 바닷가와 인접해 있음에도 접근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 이러한 지형적 장점 덕분에 향후 숙박시설 운영은 물론, 개인별 별장형 주거공간으로의 활용도 가능하다.

지역 전문가 협력으로 안정적 개발 추진

'말봉 풀펜션타운'은 대부도 측량 설계사무소가 설계를 담당하고, 시공은 양지개발이 맡아 지역 실정에 밝은 전문 인력이 함께한다. 이러한 협업 체계를 통해 단지의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관리형 펜션단지 운영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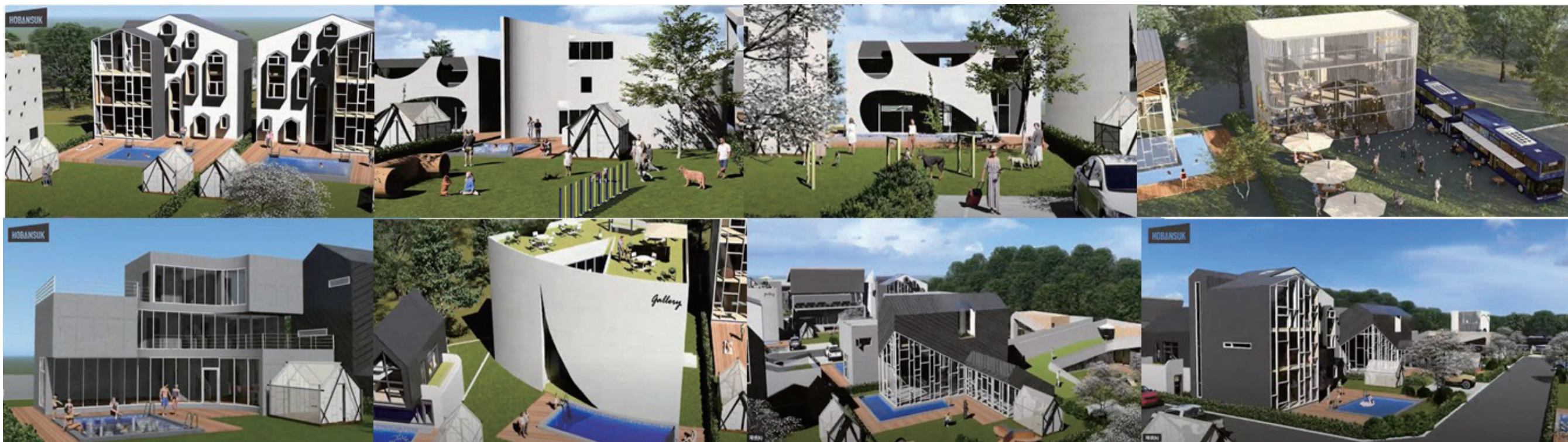
투자과 힐링이 함께하는 대부도 최고 수익형 펜션단지

'말봉 풀펜션타운'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투자와 휴식이 공존하는 프리미엄 해안형 부동산 프로젝트다. 8m 도로와 도시가스, 상권시설, 공동관리 시스템 등 완벽한 인프라를 갖춘 이번 단지는 바다를 품은 힐링공간으로서 장기적인 가치상승이 기대된다.

분양은 ㈜말봉 토지주 직영으로 진행되며, 현재 현장 방문 예약 및 상담 접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문의는 032-886-1677번으로 가능하며, 팩스는 032-887-1677이다.

바다를 품고, 수익과 여유를 동시에 누리는 '말봉 풀펜션타운' — 지금이 바로 최고의 투자 타이밍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역사가 살아 숨쉬는 섬 『대부도 지명 이야기』 1회 조선 후기 대부지도로 본 대부도 지명 이야기(상)



晴境(정경) 金善喆(김선철)
전 대남초등학교 교장
현 안산문화관광해설사

필자는 2005년 대남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여 현재까지 20여년을 대부도에 살았고, 10여 년간 자연환경해설사와 문화관광해설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 섬은 다른 곳보다 역사 관련 이야기가 많고 우리가 이야기야 할 아름다운 지명(地名)이 많음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대부도의 지명과 역사 관련 이야기를 40여 회에 걸쳐 기고(寄稿)코자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부도 마을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4부터 2016까지 3년간 안산시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큰 섬 대부도 우리마을 스토리텔링 안내서와 대부도 옛이야기 지도” 제작을 위하여 대부도 각 지역유지(地域有志) 38명의 이야기를 듣고, 웅진군지(1989), 안산시사(1999), 대부도향리지(2002)에 기록된 지명 관련 자료를 비교·확인하였다. 여기에 한국해양사, 언론자료 등을 보완하여 기술(記述)하겠습니다.



〈1872년 제작 대부지도(大阜地圖, 규10361)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가장 먼저 대부도 지명의 역사적 고찰을 위하여 1577년 전(1872년, 조선 고종 9년)에 제작된 조선 후기 대부지도(大阜地圖, 규10361,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를 참고하여 우리 고장의 지명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현군 역사지리학자에 의하면 ‘이 지도는 조선 후기 서해의 주요 섬과 수로, 관청 소속을 기록한 회화식 채색 지도로 오른쪽에 ‘대부도 지계사복 인계남양(大阜島 地系司僕 人系南陽)’이라 적혀 있다. “대부도 땅은 사복에 사람은 남양에 속하고, 사

복은 사복시(司僕寺)를 뜻하며, 말과 목장을 관장하는 관청이라 대부도는 나라에서 관리하던 목장이었던 곳으로 지도 가운데 붉은색으로 그려진 관사(官舍)는 목장을 관리하던 관청을 표시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1872년의 대부도 목장은 국가에서 관리하였고, 면적은 사면십리(四面十里), 가구수는 인호사백삼호(人戶四百三戶)라 하여 직경 8km의 큰 섬에 403가구가 살았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9월 17일 사정터길 입구에 사는 김인경 전 노인회장으로부터 “감목관(監牧官) 관사(官舍)와 범돛재 옆의 상지목골 주변을 둘러싼 토성(대부진)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해동지도(1782년, 정조 6년)가 반영된 1972년 대부지도에 관사(官舍)는 해좌(亥坐)이고, ‘대부도 감목관 관사는 현재의 대부파출소장 관사 자리에 있었고, 조선말 대부면사무소는 1910년부터 1933년까지 대부진 외곽인 고유지에 있었다’고 한다. 축성주회량위오리(築城周回量爲五里)라 표시되어 있어 대부진이 존재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동 활터가 있었는데 대부성당 남서쪽의 사대(射臺)에서 건너편 감나무골 산에 있는 과녁터로 활을 쏘았는데 광복 후 활쏘기 내기로 논밭을 잃은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옛지도에서 지금의 대부 성당 주변과 감골 일대가 서촌(西村)이고, 성(城)의 남쪽은 염막(鹽幕)으로 만아들 갯골이 있어 외적 방어(防禦)에 유리하였다.

마을 이름을 한자의 뜻대로 풀이하면, 외곡과 빼곡산 골짜기는 구석진 마을을 뜻하는 구역리(九憶里)라 하였고, 흥성리는 오가는 배를 살피는 망선리(望仙里), 갈마지는 삼배웃을 짜는 마동(麻洞), 공마루는 두 손을 맞잡는 산마루 공현(拱峴), 신당리(新塘里)는 새로 방죽을 쌓은 마을, 함지박을 닮은 마을 한지촌(寒之村)은 추운 마을, 분지촌(湓之村)은 물이 융솟음치고 물이 만나는 마을, 고유지(古油地)는 땅이 기름진 마을, 당전촌(堂前村)은 신당(神堂)의 앞에 있는 마을, 진두(津頭)는 나무가 있는 마을을 뜻한다.

〈다음호 계속〉

데스크 칼럼

안산시 또 다시 뇌물수수...시민들은 언제까지 대신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김태창
편집국장

안산시가 또 다시 뇌물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 이번에는 현직 시장이 직접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민근 시장이 안산시 ITS(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사회는 또 한번 깊은 허탈감에 빠졌다.

이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제 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귀국 후 명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이미 구속 기소된 이기환 전 경기도의원과 ITS 관련 사업가 김모 씨 사이에서 시작됐다. 김 씨는 안산시 ITS 사업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전 의원을 통해 이민근 시장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달 이 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소환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이에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시장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의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까지 연루된 이번 사건은 안산시 행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경찰은 성역 없는 철저

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근 시장은 현재 프랑스와 영국으로의 공무국외출장 중이다. 그는 “출장 중 일방적인 의혹제기와 성명 발표가 이뤄져 유감스럽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시선은 냉담하다. “또 시장이냐”는 말이 곳곳에서 들린다. 그도 그럴 것이, 안산시는 지난 수년간 반복된 비리와 구설로 신뢰를 잃어왔다. 전·현직 공직자들이 개발사업과 인허가를 둘러싸고 줄줄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일이 이어졌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은 늘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들의 정서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지 오래다. “언제까지 시장이 바뀔 때마다 비리 의혹을 듣고, 시민이 대신 부끄러워해야 하느냐”는 자조가 나올 정도다. 시민은 정직한 행정을 기대하지만, 시정은 번번이 불투명한 그림자에 갇힌다. 그 사이 ‘안산’이라는 이름은 깨끗한 행정보다는 ‘의혹의 도시’로 불리는 불명예를 떠안고 있다.

물론 이 시장의 혐의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선부른 단정은 위험하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의 비위 문제가 아니다. 시장의 투명성과 공공의 신뢰, 그리고 시민이 위임한 권력의 책임성이 걸린 문제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민근 시장은 귀국 즉시 시민 앞에 서서 직접 설명해야 한다.

시민들은 더 이상 정치적 공방이나 정당 간 책임 떠넘기기에 관심이 없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청렴한 행정’과 ‘책임 있는 리더십’이다. 안산이 더 이상 부패의 대명사로 불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 전체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윤리적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언론

대부도저널

창간
2025년 4월 7일

주 소
대표전화
홈페이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상동로97, 3층(대부북동)
(032)880-9994 팩스 : (032)880-9961
www.daebudojournal.com
E-mail_ dj250407@naver.com
입금계좌 : 신한 131-022-633961(대부도저널주식회사)

대표이사/발행인 윤성용 편집국장 김태창 광고국장 김선중

등록번호 경기 다50794 구독료 월10,000원 | 1부 3,000원(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정탁

행정사사무소

대부도측량설계사무소

대표 박정탁

안산시청 공무원 출신 행정사

◇ 2004년 안산시청 입사

◇ 2021년 안산시청 퇴직

◇ 대부도 3차례 근무 : 대부도 인허가 담당 (12~13년, 18년~21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Tel.032-880-8533 Fax.032-880-8532

Hp. 010-2378-7128 wjdskr78@hanmail.net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가설건축물

(체류형쉼터,농막)

개발부담금

불법사항해소

(건축물,임야,농지)

진정서, 탄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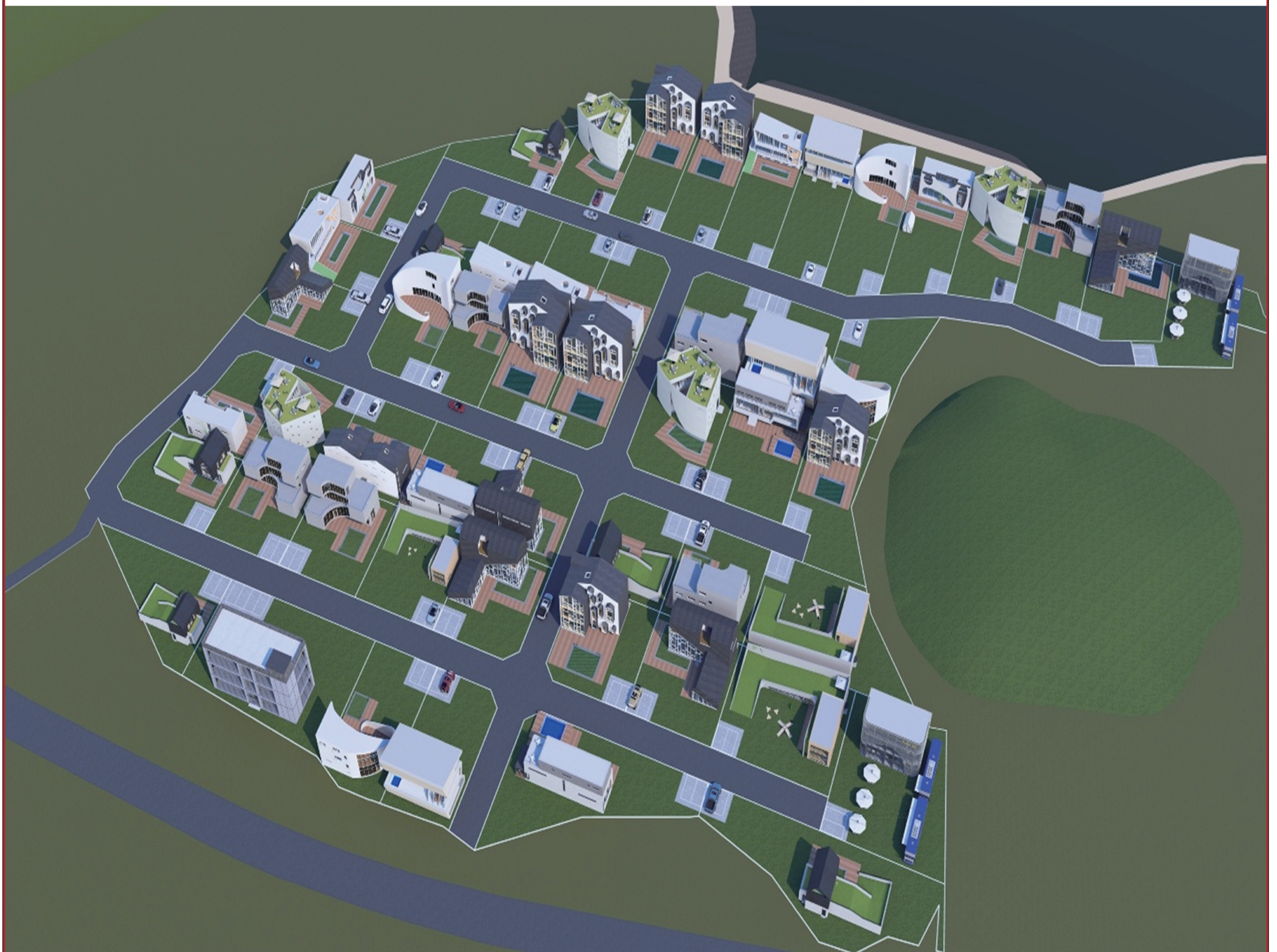
농지취득증명

각종민원해소

토지분양

“안개처럼 고요한 물가, 마음이 스며드는 쉼의 공간”

1. 대부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건폐율 인센티브 30% 적용
2. 펜션 단지 전체 도시가스 사용, 펜션단지 내 도로 8M 확정
3. 서해의 낙조가 가장 아름다운 바닷가 최고의 전망
4. 사계절 인기 만점, 대부도 최고의 수익형 부동산



펜션부지 토지분양 말봉펜션타운 (옛 말봉바다낚시터 부지)

설계사무소 : 대부도측량설계사무소 시공사 : 양지개발

토지주 직접 분양 : (주) 말 봉 상담전화 032.886.1677 FAX 032.887.1677